

## 고난 주간 금요일 아침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5장 16-32절

### #1. 로마 군인들

**16-20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희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희롱하는 저들을 향해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순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 #2. 구레나 사람 시몬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오늘날 에디오피아인 구레네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것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롬 16: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건이,

시몬은 물론 그의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뤄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 #3. 유대인들

**29-32절**,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며.. 희롱하며... 욕하”였던 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희롱하는지를 보십시오.

“...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31절)

“...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32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막 14:49)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뜻(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흘리셨습니다.**

#### #4. 에필로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39-40)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